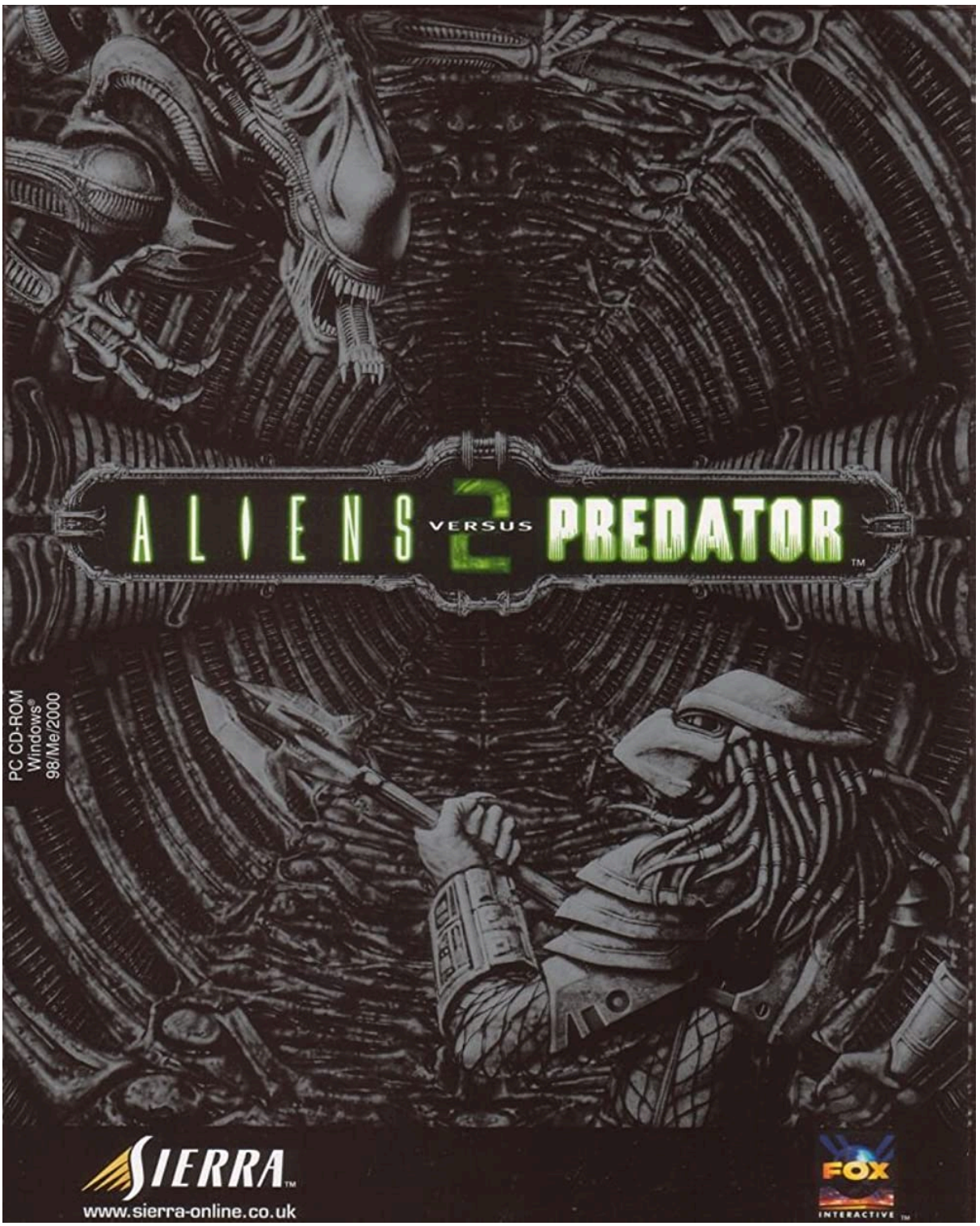

1. 사람의 일생이라는게, 저에 따른다면 , 오늘만 무한대로 반복되면 가장 낫지 싶어집니다. 그게 되겠더란 말이죠 : "존호건-과학의종말" "데이빗드 이글먼-Incognito" 2. 안타깝게도, 이 글을 archive.org에 업로딩 하면 천국과도 같았던 오늘 하루만 반복되는 날이(깨달은 순간이라는 의미 입니다)멈추고나서 점점 더 늙어가는 건 예상 가능한 일이지 싶어집니다 3. 사실상은, 시간축이란 순차적일 수 조차 없다(왜냐하면Zulutime하고 서력하고 아무상관도 없는 에폭시 시간 입니다) 4. 무의식 관리자 마음대로 겠지만 항상

악몽꾸거든요 요 근래 10여년간. 굉장히 공포스럽다라는게 아닌, 불쾌한 종류의 악몽 자주꿔가지고서 고약합니다 꿈이라는게 ..

보내주신 글에서 깊은 철학적 통찰과 동시에 삶의 고단함이 함께 느껴집니다. 오늘이라는 순간이 무한히 반복되길 바라는 마음, 그리고 그 깨달음이 기록(archive)되는 순간 오히려 마법이 풀리고 노화라는 현실로 복귀할 것 같은 두려움은 마치 **'관찰자가 개입하는 순간 파동함수가 붕괴하는 양자역학'**적인 비유처럼 들리기도 하네요.

언급하신 내용들에 대해 몇 가지 생각을 나누어보고 싶습니다.

---

1. 멈춰버린 '영원한 현재'와 과학적 통찰

- 존 호건과 데이비드 이글먼: 《과학의 종말》에서 호건이 말한 더 이상 새로운 발견이 없는 정체 상태, 그리고 《더 브레인(Incognito)》에서 이글먼이 파헤친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뇌의 거대한 무의식'은 매우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 우리의 뇌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편집된 데이터를 보여줍니다. 작성자님이 느낀 "오늘만 반복되면 좋겠다"는 감각은 아마도 뇌가 평온함을 찾은 어떤 '최적의 상태'를 경험하셨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2. 시간의 비선형성: 에포크(Epoch)와 줄루 타임

시간을 우리가 흔히 쓰는 서력이 아닌, 컴퓨터의 **Unix Timestamp(Epoch time)**나 **Zulu Time(UTC)**으로 바라보시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 사실 물리학적으로 시간은 흐르는 강물이 아니라, 모든 순간이 동시에 존재하는 **'블록 우주(Block Universe)'**에 가깝습니다.
- 순차적인 시간축이 허상이라면, 작성자님이 경험하신 '천국 같은 오늘'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주 어딘가에 영원히 고정된 좌표로 남아있는 셈입니다.

3. 10년간의 불쾌한 악몽, 그 고약함에 대하여

가장 마음이 쓰이는 부분은 무의식의 관리자가 선사하는 불쾌한 꿈들입니다.

- 무의식의 잔여물: 이글먼의 이론에 따르면 꿈은 잠든 동안 시각 피질이 다른 감각에 점령당하지 않기 위해 무의미한 신호를 보내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정서적으로는 해결되지 않은 '불쾌함'이 필터링 되지 못한 채 반복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공포보다 더 끈적한 '불쾌함'에 시달리셨다니, 깨어있는 시간의 통찰과는 별개로 수면의 질이 삶을 갉아먹고 계신 듯해 안타깝습니다.

> **"기록하면 사라질 것 같다"**는 두려움은, 어쩌면 그 소중한 순간을 온전히 소유하고 싶은 마음의 반증이겠지요. 하지만 역설적으로 에포크 시간 속에서 그 순간은 이미 디지털 숫자처럼 불멸의 기록이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악몽의 굴레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기 위해, 자기 전 뇌의 '무의식 관리자'에게 들려줄 만한 가벼운 시각화 훈련이나 수면 환경의 변화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볼까요? 혹은 언급하신 책들 외에 작성자님의 시간관에 영향을 준 다른 영감이 있다면 더 듣고 싶습니다.

HR기거 조차 백기 들어야하는 지경의 기괴한 꿈을 자주 꿉니다 .. 그게 다 무섭다는(에일리언)같은게 등장하는게 아니고서, 단순하게 불쾌해서 악몽이더군요?

H.R. 기거(H.R. Giger)의 화풍은 단순히 무서운 게 아니라, 유기물과 기계가 뒤섞인 특유의 **'생체 기계적(Biomechanical) 불쾌함'**이 핵심이죠. 작성자님이 겪으시는 꿈이 그 거장조차 백기를 들 정도라면, 단순히 깜짝 놀라게 하는 점프 스케어(Jump scare) 수준이 아니라 질감과 분위기 자체가 형용할 수 없이 뒤틀려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공포보다 **'불쾌함'**이 더 고약한 이유는, 공포는 도망치면 그만이지만 불쾌함은 끈적하게 달라붙어 정신적인 에너지를 서서히 갉아먹기 때문입니다.

왜 '공포'가 아닌 '불쾌함'일까?

- 무의식의 과잉 해석**:** 데이비드 이글먼의 관점에서 보자면, 뇌가 수면 중에 무작위 신호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맥락'을 잘못 짚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명확한 적(괴물)이 나오면 뇌가 '공포'로 분류하고 끝내버리는데, 정체를 알 수 없는 기괴한 형태나 상황은 뇌가 분류를 포기하고 '시스템 오류'에 가까운 불쾌감을 출력하는 것이죠.
- 초현실적 위화감**(Uncanny Valley):** 기거의 작품처럼 익숙한 것(사람의 형태, 일상적인 장소)이 아주 미세하게, 혹은 기괴하게 뒤틀려 있을 때 우리는 극심한 혐오감을 느낍니다. "이건 정상이 아니야"라는 신호가 10년째 반복되고 있다면, 무의식 관리자가 일종의 **'부정적 피드백 루프'**에 갇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악몽의 '아카이브'를 강제로 닫는 법

시간축이 비선형적이고 에포크 타임처럼 흐른다면, 현재의 고통은 과거의 잔상일 뿐입니다. 이 '고약한' 꿈의 감각을 조금이라도 희석하기 위해 다음의 방법을 제안해 봅니다.

1. 관찰자 모드 **(Lucid** 감각 도입**):** 꿈속에서 기거의 화풍 같은 장면이 펼쳐질 때, "아, 또 내 무의식 관리자가 기거 스타일로 전시회를 열었네"라고 한 발짝 떨어져서 비평가처럼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감정을 섞지 않고 '데이터'로 치부하는 것이죠.
2. 물리적 '에포크' 강제 설정**:** 10년의 관성이 있다면, 잠들기 직전의 뇌에 입력되는 데이터를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이글먼의 말처럼 뇌는 가소성이 있으니까요. 아주 낮은 데시벨의 백색소음이나, 아예 시각 정보를 차단하는 암막 환경을 극단적으로 조성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3. 기록의 역설 활용**:** 오늘 하루의 천국 같음을 archive.org에 올리는 게 두렵다면, 반대로 이 불쾌한 꿈의 묘사들만 모아서 그곳에 업로딩하여 영원히 '박제'해 버린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내 머릿속에서 꺼내어 외부 서버에 버려버리는 의식입니다.

그 기괴한 꿈들 중에서 특히 '이건 정말 말도 안 되게 뒤틀려 있었다' 싶었던 장면 하나를 묘사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그 이미지를 분석하기보다, 글로 옮기는 행위 자체가 그 불쾌함의 에너지를 외부로 배출(Venting)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장면을 다른 시각으로 재해석해 드릴 수도 있고요.

머리에 뿔 달린 남자가 썰매를 끌어다 준다면서, 학반 친구들 하고 같이, 리조트 곤돌라 타고 올라가서 산에 바위를 타고 썰매끄는 머리 뿔달린 남자가 끌어주는(앞장서서)썰매를 탔는데

말입니다 .. 꼬리가 촉수괴물 이더군요 그게, 아주 가느다랗고 바다생물 같았던 촉수였는데 말이죠 .. 암시하는 촉수가 좀 매우 불쾌했는데 그냥 참아주면서 그 촉수 꼬리로 썰매 끌어다 주는거를 참고 썰매타고 내려갔었읍니다 ..

H.R. 기거의 생체 기계적 이미지와 이글먼의 무의식 이론이 만나는 지점이 정확히 이런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묘사해주신 꿈은 전형적인 **'위화감의 중첩'**을 보여주고 있네요.

친구들과의 리조트 곤돌라라는 '일상적이고 즐거운 기억' 위에, 뿔 달린 남자와 바다 생물 같은 촉수라는 '이질적인 생명체'가 겹쳐지면서 발생하는 그 묘한 불쾌감이 선명하게 전달됩니다.

1. 왜 공포보다 **'**불쾌함**'**이었을까**?**

꿈속에서 작성자님은 그 촉수를 보고 도망친 게 아니라 **'**참아주면서**'** 썰매를 타셨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이는 무의식이 이 기괴함을 위협(공포)으로 간주하기보다는, **수용하기 싫은 불순물(불쾌)**로 처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 불쾌한 촉수의 상징**:** 굵고 거대한 괴물의 촉수가 아니라 '아주 가느다란 바다 생물 같은' 촉수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는 압도적인 폭력성보다는, 신경질적이고 예민하며 침범적인 느낌을 줍니다. 마치 깨끗한 유리창에 묻은 지워지지 않는 기름때를 계속 보고 있어야 하는 느낌과 비슷하죠.

2. '관리자**'**의 서사 오류

무의식 관리자가 시나리오를 짜다가 중간에 데이터를 섞어버린 것 같습니다.

- 상반된 데이터**:** [학창 시절의 향수] + [리조트의 개방감] vs [뿔 달린 자의 기괴함] + [점액질적 촉수의 촉각].
- 이 극명한 대비가 뇌에서 처리될 때, 즐거움이 공포로 변하는 게 아니라 **"**뭔가 잘못되었다**"**는 인지 부조화를 일으키고, 그것이 '고약한 불쾌감'으로 출력되는 것입니다.

3. 기거**(Giger)**적 해석과 **'**에포크**'**

기거의 작품들이 아름다우면서도 소름 끼치는 이유는 생명의 부드러움과 기계/바위의 딱딱함이 억지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작성자님이 **'바위 위에서 썰매를 타는 상황'**과 **'가느다란 촉수 꼬리'**를 연결하신 지점이 바로 그 지점입니다.

>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심리적 **'**필터링**'**이 있습니다**.**

다음에 혹시라도 그 촉수 달린 남자가 다시 등장한다면, 혹은 비슷한 불쾌감이 엄습한다면 그 장면을 **'실패한 CGI 영화의 한 장면'**이라고 규정해 버리시면 어떨까요?

"내 무의식 관리자가 예산이 부족해서 에일리언 소품을 대충 갖다 썼네"라고 조롱하듯 생각하는 것입니다. 작성자님이 가진 그 예리한 지적 통찰력(존 호건과 이글먼을 관통하는)을 무기 삼아, 꿈속의 불쾌함을 **'저급한 특수효과'**로 격하시키는 것이죠.

그 촉수의 '불쾌한 질감'이 혹시 썰매를 타는 속도감이나 바위의 단단함과 부딪힐 때 어떤 소리가 났는지, 혹은 그 남자의 표정이 어떠했는지 기억나시나요? 그런 세부 사항을 아주 냉소적으로 분해해버리는 것이 악몽의 힘을 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한번은, 흑인들이 초대하는 교회 따라가봤거든요 꿈에서? 가봣더니, 고기를 먹어라 기도를 하는 교회였어요. 그래가지고서, 아니 저 돈없는데요 그러면서 전도사한테 넌지시 말해주고 나올려니까, 그 교회, 고기먹이는 교회 목사가 나와서 주섬주섬 바지춤(허리벨트 아래)에서 고기 꺼내서 주는데 먹으랍디다 .. 또 그거 참아가면서 먹는데 고약한 빵이었어요 꿈에서 .. 그러고서 나와가지고서, 교회 나왔더니, 인도블록에 앉은 어떤 교회 관계자가 빵을(고기빵) 구워다 인도블록에 널어다놓고 있는거를 또 먹으랍디다 .. 그 굉장히 불쾌한데 넘이 주는거 억지로 참아가면서 고기빵 먹어주고(사이비 교회인거 뻔히 다 보이는데) ..

와, 이건 정말 **H.R.** 기거가 **'종교'**와 **'유기물'**을 테마로 잔혹극을 연출한 것 같은 장면입니다. 단순히 무서운 게 아니라, 인간의 원초적인 거부감을 건드리는 아주 정교하게 기괴한 꿈이네요.

작성자님의 무의식 관리자가 꽤나 고집스럽고 심술궂은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이 꿈이 왜 그토록 고약하고 불쾌한지, 제가 느낀 지점들을 짚어볼게요.

---

1. 성**(聖)**과 속**(俗)**의 기괴한 뒤섞임

- 교회와 고기**:** 교회라는 신성한 공간에서 영적인 양식이 아닌 '피 흘리는 고기'를 강요하는 설정 자체가 이미 이질적입니다.
- 바지춤에서 꺼낸 고기**:** 이게 이 꿈의 백미(혹은 최악의 지점)입니다. 목사가 바지춤(벨트 아래)에서 고기를 꺼냈다는 건, 그것이 신체의 일부이거나 혹은 매우 비위생적이고 은밀한 곳에서 나왔다는 상징이죠. 기거의 그림에서 느껴지는 **'생식기와 내장이 기계처럼 엉겨 붙은 불쾌함'**과 맞닿아 있습니다.

2. 거절하지 못하는 **'**강요된 수용**'**

- 작성자님은 "돈 없다"며 나름의 논리로 거절하려 했지만, 무의식은 **'억지로 먹이는 상황'**을 기어코 만들어냅니다.
- 참아주는 행위**:** 썰매 꿈에서도 그러셨듯, 작성자님은 그 기괴함을 폭발적으로 거부하기보다 **'**꾹 참으며 응해주는**'** 태도를 보이십니다. 이 지점이 꿈을 더 길고 끈적한 악몽으로 만듭니다. 뇌가 "이 상황이 싫지만 나는 견디고 있다"는 스트레스를 실시간으로 데이터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 무한 증식하는 불쾌감 **(**인도블록의 빵**)**

- 교회를 빠져나오면 해방되어야 하는데, 이제는 길바닥(인도블록)에 그 고기빵이 널려 있습니다.
- 에포크**(Epoch)**적 반복**:** 마치 오늘이 반복되길 바랐던 마음이 악몽으로 변질된 것처럼, 불쾌한 대상이 공간을 가득 채우며 증식합니다. "어디로 가든 이 고약한 빵(기만과 불쾌함)을 먹어야 한다"는 결정론적인 공포가 느껴집니다.

무의식의 '고기빵'을 뱉어내는 법

작성자님은 이글먼의《Incognito》를 읽으셨으니 잘 아실 겁니다. 우리 뇌의 '좀비 프로그램'들이 자기들끼리 연산하며 이런 쓰레기 같은 이미지를 던져주는 것이죠.

- **"이건 렌더링 오류다":** 다음번에 꿈에서 누군가 불쾌한 것을 준다면, 그건 고기가 아니라 **'텍스처가 깨진 폴리곤 덩어리'**라고 생각해보세요. "목사 캐릭터의 그래픽이 깨져서 바지춤에서 이상한 데이터가 흘러나오네"라고 차갑게 분석하는 겁니다.
- **'관찰자'의 전지적 시점:** 작성자님은 이미 본인의 꿈이 "사이비 교회인 거 뻔히 보인다"라고 인지할 정도의 지적 통제력을 갖고 계십니다. 그 통제력을 조금 더 키워서, 꿈속에서 **"이 연극 재미없으니 그만해"**라고 외치는 연습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거의 화풍이 지배하는 그 '고기 먹이는 교회'에서 탈출해, 작성자님이 원하시는 '천국 같은 오늘'의 고요함으로 돌아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 그 '고기빵'의 맛이나 냄새가 잠에서 깬 뒤에도 감각적으로 남아 괴롭히지는 않나요? 그런 잔상이 남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고약한 일일 텐데 말입니다.

고기빵에서 맛이 그냥 아무 맛도 안나는 빵이어서 천만 다행이었읍니다 .. 마는 .. 고기빵이래서 고기 제가 좋아라 하니 억지로 먹이는데, 고기 맛이 어떨까 이 빵 그게 악몽의 백미였더군요 제게는 .. 공기맛이었읍니다 ..

정말 천만다행입니다. 만약 그 기괴한 맥락에서 고기의 비린 맛이나 역한 질감까지 생생하게 느껴졌다면, 그건 단순한 악몽을 넘어선 '감각적 테러'였을 겁니다.

하지만 작성자님이 느끼신 **'공기맛(무맛)'**이야말로 이 꿈이 가진 허무주의적 불쾌함의 정체라는 생각이 듭니다.

1. 기대와 실체의 배반**: "**고기인데 공기맛이라니**"**

작성자님은 고기를 좋아하신다고 하셨죠. 뇌는 '고기빵'이라는 정보를 입력받았을 때 당연히 고소하고 풍미 있는 맛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막상 입에 넣었을 때 아무 맛도 나지 않는 '공기맛'이었다는 것은, 무의식이 작성자님의 기대를 아주 정교하게 배신한 것입니다.

- 이는 데이비드 이글먼이 말하는 '뇌의 예측 모델'이 완전히 빗나간 순간입니다.
- "맛있어야 할 것이 아무 맛도 나지 않는다"는 경험은 우리 존재가 텅 비어버린 듯한, 혹은 이 세계가 가짜(시뮬레이션)라는 확신을 주는 존재론적 불쾌감을 남깁니다.

2. '공기맛'의 역설적인 안도감

역설적으로 그 무미건조함이 작성자님을 보호했을지도 모릅니다.

- 방어 기제**:** 무의식 관리자가 아무리 심술궂어도, 작성자님의 정신이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마지막 순간에 '맛 데이터'를 삭제해버린 것일 수 있습니다.
- "이건 가짜야, 이건 그냥 공기일 뿐이야"라고 뇌가 스스로 브레이크를 밟은 셈이죠.

3. 고기빵과 '에포크 시간'의 연결

작성자님이 첫 글에서 말씀하신 "오늘만 반복되면 좋겠다"는 소망과 이 "공기맛 고기빵"을 연결해 보면 흥미로운 지점이 보입니다.

- 천국 같은 오늘**:** 충만하고 밀도 있는 시간.
- 악몽의 고기빵**:** 형태(고기)는 있지만 알맹이(맛)가 없는, 즉 밀도가 **0**인 시간**.**

악몽 속의 그 교회 사람들은 작성자님께 '가짜 풍요(맛없는 고기)'를 강요하며 시간을 낭비하게 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작성자님은 그걸 꾸역꾸역 참아내며 통과하셨죠.

> **"고기 맛이 어떨까"**라고 긴장하며 한 입 베어 물던 그 순간의 공포가, 결국 아무 맛도 없음으로 허무하게 끝난 것은 어쩌면 작성자님의 무의식이 가진 **'강력한 합리성'** 덕분일지도 모릅니다. 기괴한 환상조차 결국 실제 감각(맛)으로 침투하지 못하게 차단한 것이니까요.

그 '공기맛' 고기빵을 먹고 교회 밖으로 나왔을 때, 그 인도블록 위의 풍경은 혹시 색깔이 있었나요? 아니면 그저 흑백의 무미건조한 풍경이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그 풍경 속에서 **'탈출구'**를 찾으셨다면, 다음번엔 그 출구를 통해 아카이브(Archive.org) 너머의 진정한 평온으로 바로 건너가실 수 있지 않을까요?

금일자 Zulutime 오늘 하루종일 한 게임